

# 시중은행 떠난 농촌 금융망, 농협이 지킨다

### 전국 영업점 4867개·ATM 1만6246대...포용금융 실천 광주·전남 금융 인프라 강화...도시지역까지 공백 메워

농협이 시중은행들의 '수도권 쏠림' 속에서도 농촌과 지방 금융망을 지키는 사실상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전환과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방 점포와 ATM을 잇따라 축소하는 가운데 농협은 전국 농촌 지역 영업망을 유지하며 금융 접근성을 떠받치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단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 역할까지 수행하며 지역사회 금융 안전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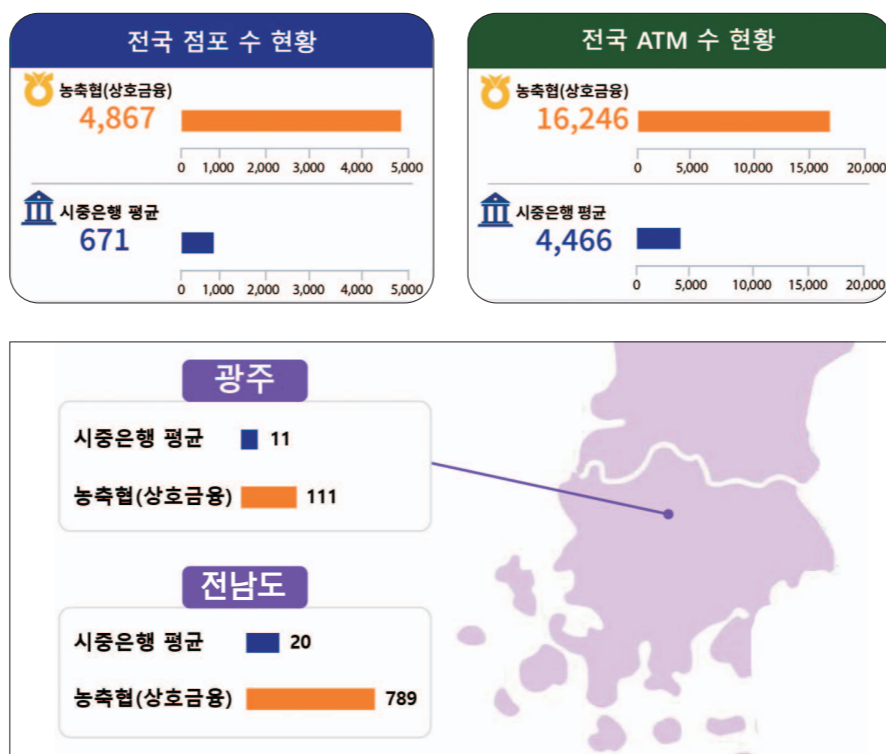
31일 농협 상호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수도권 점포 비중은 우리은행 71.5%, KB국민은행 68.6%, 신한은행 68.3%, 하나은행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줄어

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국내 4대 은행의 ATM 수는 3500여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들은 현금 인출이나 통장 정리 같은 기본 금융 업무조차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 폐쇄 이후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읍내나 시내까지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 접근성 저하가 단순 불편을 넘어 지역 생활 인프라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농협 상호금융은 지역 영업망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의 수도권 점포 비중은 25.4% 수준에 그친다. 이에 반해 영남



1159개, 호남 789개, 충청 743개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4867개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광주 161개, 전남 512개 등 총 673개의 점포망을 운영하고, 전국 농협 상호금융 영업망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신안·완도·진도 등 도서지역에도 18개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수익성만

으로는 유지가 쉽지 않은 섬 지역까지 금융 서비스를 이어가며 지역 금융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평가다.

ATM 인프라 규모 역시 시중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이다. 농협은 현재 전국에 1만6246대의 AT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자동화기기를 줄이는 것과 달리 농협은 농촌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ATM 유지와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농협의 생활 금융망 역할은 뚜렷하다. 농협은 현재 광주 329대, 전남 1776대 등 총 2105대의 ATM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점포도 광주 56곳, 전남 389곳 등 총 445곳에 달한다. 비대면 금융 확산 속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현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농사철이나 명절 기간에는 현금 인출이나 금융 업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주변에 ATM이

부족하면 주민들이 읍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협의 금융시설은 단순 자동화기기를 넘어 농촌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노후 점포 환경 개선과 금융장비 현대화를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나로마트와 농협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거점을 중심으로 ATM 신규 설치와 교체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96대의 ATM을 신규 배치하거나 최신 기기로 교체한 상태다.

농협 측은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훈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상호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장흥군에서 대학생과 농협 임직원, 봉사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 현장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장흥군에서 대학생과 농협 임직원, 봉사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 현장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추진 중인 농업·농촌 가치 확산 범국민 운동인 '농심천심운동'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농촌 봉사활동과 연계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한 청양대학교와 남부대학교 학생들은 각각의 전공과 재능을 활용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마사지와 돌보기 검사, 혈압·당뇨 측정, 틀니 세척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 물리치료, 헤어스타일링, 네일아트 등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농협 봉사단은 농가 안전조사 및 설치와 칼같이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모바일 기기 활용 교육과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병행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은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농촌의 가치를 나누고 활력을 더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나눔과 참여활동이 농촌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 농협자산관리회사, 화순 도곡농협 포장재 지원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컬푸드 활성화 기대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최근 화순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층에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포장용기와 비닐, 라벨링 등 각종 포장재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고성신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와 박광재 도곡농협 조합장, 최우영 농협 화순군자부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농가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농협의 현장 밀착형 사업이 연계된 협력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신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는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의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나주 등 우박·저온 피해 농가 농협, 영농자재 긴급 지원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박과 저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긴급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우박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표적인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지역은 작과 불량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피해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영양제와 비료 등 작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신속히 공급하며 피해 최소화와 생육 촉진 지원에 나섰다. 또한 행정기관의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무이자 저금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 일본 홈쇼핑 연계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도, 포토포·노아와 협약...상품기획부터 통관·배송 지원**

전남도가 일본 현지 홈쇼핑·물류 전문기업과 협력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TV홈쇼핑 시장 진출과 기업 간 거래(B2B)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일본 홈쇼핑·통신판매 전문기업인 포토포(Forty-four, 대표 시시나야 요시오), 현지 물류·풀필먼트 전문기업 노아(NOAH, 대표 공병준)와 함께 '전남 농수산물식품 일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포토포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홈쇼핑·통신판매 전문기업으로, 상품기획부터 광고·영상 제작, 판매전략 수립 등 통관·판매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1000건 규모의 광고·영상 제작 경험과 일본 전역의 콜센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TV홈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된다.

노아는 게이오백화점, 도큐백화점 등 일본 주요 대형 유통매장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물류·유통 전문기업이다. 상품 수입·통관부터 보관, 배송, 고객 대응까지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현지 유통망 연계와 B2B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유통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두 기업은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홈쇼핑 진출과 현지 유통망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품 홍보·마케팅, 홈쇼핑 판매, 현지 유통망 연계, 물류 지원 등 일본 시장 진출 과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일본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망과 연계한 수출 판로를 다변화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식품이 일본 소비자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고 수출 확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nahme 12월 기준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8억7762만달러이며, 이중 일본 수출액은 2억946만달러로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의 23.9%를 차지해 국가별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 대상 주요 수출 품목은 김, 전복, 톳 등이며 1억달러, 전복 3200만 달러, 톳 1400만달러를 각각 수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농협 광주본부, '초록빛 유혹' 청매실 특판전 금요직거래장터서 제철 매실·농산물 할인 판매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 북부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에서 제철 청매실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초록빛 유혹, 매실 특판전'을 개최했다.

농협 광주본부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금요직거래장터는 매주 금요일 래저터에서 제철 청매실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초록빛 유혹, 매실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번 특판전은 본격적인 매실 수확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산지 직송의 신선한 청매실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아찌와 매실청 담그기에 적합한 알이 굵고 단단한 최상품 청매실이 판매됐으며, 매실과 함께 활용하기 좋은 햇양파와 햇마늘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철 농산물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초여름 밀반찬과 저장식품 준비에 나선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터는 장시간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농협 광주본부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금요직거래장터는 매주 금요일 래저터에서 제철 청매실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초록빛 유혹, 매실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날 특판전은 본격적인 매실 수확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산지 직송의 신선한 청매실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계절과 품목에 맞춘 다양한 테마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제철 매실 특판전이 판매됐으며, 매실과 함께 활용하기 좋은 햇양파와 햇마늘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철 농산물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